

## 百濟 基壇 築造術의 對新羅 傳播

趙 源 昌

(중원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대전대학교 한국문화사학과 겸임교수)

주제어 : 기단축조술, 조사공, 와적기단, 이중기단, 가구기단

## 1. 序論

백제에서 신라(통일신라 포함)로의 문화전파는 주로 불교문화에서 그 片鱗을 살필 수 있다. 이는 史書에 등장하는 여러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즉 신라의 여러 유적에서 검출된 백제계의 원형돌기식 와당<sup>1)</sup>이나 印刻瓦<sup>2)</sup> 등은 백제에서 신라로의 瓦博士(혹은 와공) 파견 및 製瓦術 전파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阿非知로 대표되는 백제 造塔工의 신라 파견도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나 고고학적 물증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신라와의 구체적인 문화교섭은 그 동안 거의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단절은 고고학과 건축학의 연계성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부족으로도 압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주와 부여를 비롯한 경주지역 등 과거 백제와 신라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한 유적(寺址 및 건물지 등) 조사 결과 遺構나 유물에서의 親緣性이 찾아져 이들 국가간의 대외교섭 또한 그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건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는 遺構는 건물의 하부구조 즉, 초석이나 적심을 비롯한 기단 등이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초석이나 적심은 축조기법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조영시기나 國籍을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기단의 경우는 건물 조영과 관련된 문헌기록이나 이와 공반되는 토기 등의 검출로 인해 국적이나 편년설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기단은 그 재료에 따라 石築基壇, 土築基壇, 瓦積基壇, 磚積基壇, 磚石混築基壇, 磚土混築基壇 등으로 나뉘며 일반적인 석축기단의 경우 돌 표면의 治石 정도에 따라 割石基壇과 治石基壇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는 축조방법에 따라 다시 割石亂層基壇, 割石正層基壇, 治石亂層基壇, 治石正層基壇, 架構基壇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sup>3)</sup>. 이 중 가구기단이나 이중기단은 莊嚴性和 威嚴性을 대변하는 것으로써 삼국시대 특히 백제의 堂塔遺蹟에 많이 활용되었다.

본고는 그 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및 신라에서 확인된 기단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백제에서 신라(통일신라 포함)로의 기술 전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삼국 중 백제에서 유행을 보였던 瓦積基壇<sup>4)</sup>, 二重基壇<sup>5)</sup>, 架構基壇<sup>6)</sup> 등을 통해 백제 造寺工의 기단 건축술을 살펴보고자 한

3) 趙源昌, 百濟 建築技術의 對日傳播,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 趙源昌, 百濟 瓦積基壇에 대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호, 2000.

5) 이는 달리 二層基壇, 重成基壇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중기단으로 부르고자 한다.

趙源昌, 百濟 二層基壇 築造術의 日本 飛鳥寺 傳播, 百濟研究 35輯, 2002.

6) 趙源昌, 寺刹建築으로 본 架構基壇의 變遷 研究, 百濟文化 32집, 2003.

1) 月城 및 皇龍寺址, 雁鴨池, 六通里가마, 勿川里가마 등에서 출토되었다.

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 發掘 調査報告書, 2003.

다. 아울러 신라의 故土에서 확인된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의 와적기단, 이중기단, 가구기단 등과 비교 검토하여 백제 기단 축조술의 신라(통일신라 포함) 전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架構基壇 築造術

가구기단은 地臺石, 面石, 甲石으로 결구되었으며 그 동안의 발굴결과를 검토해 볼 때 單層基壇이나 이중기단의 상층기단에 시설되어 왔다. 고려시대 崇善寺址를 제외한 백제, 통일신라, 고려의 寺院 유적을 보면 가구기단은 金堂址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기단 구조의 특수성으로 보아 별도의 造寺工에 의해 조영되었음도 판단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삼국의 가구기단은 백제의 것이 유일하며 고구려나 신라에서의 가구기단은 조사된 예가 없다<sup>7)</sup>.

반면, 삼국통일 직후에 이르면 경주 感恩寺址에 화려한 가구기단이 등장하게 된다. 감은사지는 통일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願刹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신라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신라의 故土에서 그 동안 가구기단이 전연 검출되지 않았음을 살펴 볼 때 구조적 특성이 내포된 가구기단의 등장은 대외 기술의 전파 이외에는 고려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사비시대 이후 주요 寺址의 금당지에 가구기단이 사용된 백제의 사례는 신라와 자못 비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검출된 백제의 가구기단 중 비교적 편년이 확실한 미륵사지의 기단을 통일신라의 感恩寺址 架構基壇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기단 축조술의 전파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 2-1. 百濟의 架構基壇

백제의 가구기단은 그 동안의 발굴조사 결과 사

비시대의 陵寺址 금당지, 金剛寺址 금당지, 彌勒寺址 금당지 및 강당지 등에서 만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능사지 및 금강사지의 경우는 遺構의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완전한 상태의 가구기단은 살피기가 어렵다. 다만, 미륵사지의 동·중·서원 금당지 및 강당지에서 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백제 가구기단의 특징은 미륵사지 및 금강사지 금당지에서처럼 地臺石의 隅石(그림 1) 상면에서 방형에 가까운 隅柱의 주좌부가 살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隅石에서의 隅柱의 존재는 통일신라시대의 보령 聖住寺址 금당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지역성 및 기술 전파 등을 엿보이게 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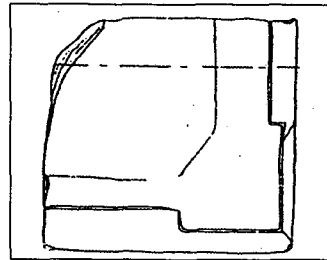


그림 1. 金剛寺址 架構基壇 地臺石(隅石)

본고에서는 시대적 편년이 확실하고 유구의 잔존 상태가 양호한 미륵사지의 가구기단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彌勒寺址

미륵사지에서의 가구기단은 東院 金堂址(그림 2), 中院 금당지, 西院 금당지, 그리고 講堂址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이 중 동·중·서원 금당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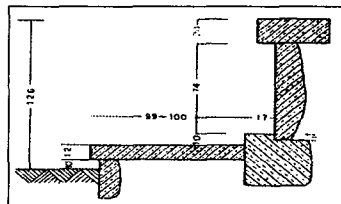


그림 2. 彌勒寺址 東院 金堂址 架構基壇

7) 그 동안 고구려나 신라의 가구기단이라 하여 고고학계에 보고된 예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國內城時期에 이미 중국의 영향을 받은 궁궐건축이나 禮制建築, 그리고 사원건축 등이 일찍부터 조영되었기 때문에 향후 가구기단이 검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신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金城 등 경주지역의 여러 건물지나 사찰유적 등을 조사하였으나 가구기단은 조사된 바 없다. 다만, 통일기의 感恩寺址에서 그 예가 확인될 뿐이다.

8) 聖住寺址는 백제 호국사찰인 烏舍寺址의 후신이다. 따라서 백제의 금강사지 및 미륵사지에서 만 살펴진 隅柱의 존재가 통일신라시대의 성주사지 금당지에서 만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이의 조성에 백제계 造寺工 혹은 백제의 기단 축조술이 이 시기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우는 모두 이중기단으로서 상층기단이 가구기단으로 시설되었다<sup>9)</sup>. 아울러 하층기단은 長板石의 甲石과 面石으로만 결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강당지의 가구기단(그림 3)은 세 금당지와 구조가 다른 單層의 가구기단이나 세 금당지의 상층기단과 크기만 다를 뿐 部材, 결구수법 등은 동일하다<sup>10)</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東院 金堂址만을 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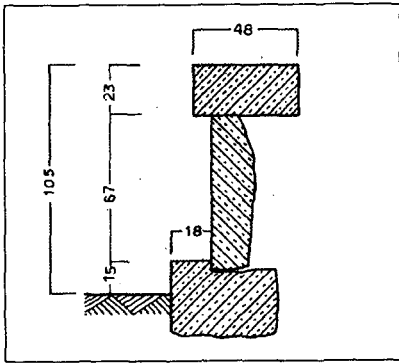


그림 3. 彌勒寺址 講堂址 架構基壇 復元圖

하층기단은 別石의 面석과 갑석으로 결구되었다<sup>11)</sup>. 갑석은 上層基壇의 地臺石과 맞닿아 있으며 지대석 外緣으로부터 약 1m 길이로 깔려 있다. 지대석 한 판의 크기는 100×60~90cm이며 두께는 12cm이다.

상층기단의 지대석 상면에는 面石을 세우기 위한 턱이 3cm 깊이로 파여 있다. 아울러 네 모퉁이(隅石)에서는 金剛寺址 금당지에서 본 것과 동일한 隅柱의 홈(너비 56cm)이 방형에 가깝게 음각되어 있다. 면석은 높이가 약 74cm, 두께는 최고 30cm이다. 면석 위에는 20cm 두께의 甲石이 올려져 있다. 동원 금당지의 전체 높이는 약 126cm이다.

한편, 동·서원 승방지, 동원 남회랑지, 동원 동

회랑지, 중원 남회랑지, 중원 서회랑지, 중원 북회랑지, 서원 서회랑지, 강당지 북편 건물지 등은 지대석이 없이 면석과 갑석으로만 결구되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가구기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2)</sup>.

### 2-2. 統一新羅의 架構基壇

그 동안 발굴조사 된 통일신라시대의 가구기단은 聖住寺址 금당지를 비롯한 高達寺址 1건물지(금당지 추정), 夫人寺址 금당지, 實相寺 금당지, 장항리사지 금당지, 王宮里寺址 금당지 등 사원건축의 금당지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가람배치상 금당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건물의 위엄성과 장엄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기단은 고려시대의 금당지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데 居禪寺址 금당지, 崇善寺址 금당지·서회랑지, 九龍寺址 1건물지(금당지), 普門寺址 금당지, 法泉寺址 중앙 건물지 등이 좋은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창건연대가 분명하고 백제 미륵사지의 가구기단과 구조면에서 친연성이 있는 감은사지의 가구기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感恩寺址

感恩寺址에서의 가구기단은 금당지를 비롯한 강당지, 서회랑지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sup>13)</sup> 강당지와 서회랑지의 축조방법이 동일하여 여기에서는 강당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 • 金堂址(그림 4)

금당지는 이중기단으로 축조되었으며, 상층기단이 가구기단이다. 하층기단을 마감한 甲石은 길이 1.3~1.5m가 대부분이나 2.1m에 달하는 細長한 것도 있으며, 높이 29cm, 너비 36cm의 크기로서 상면과 외면을 治石하였다. 장대석과 연결되는 기단 내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다듬은 석재로 마무리하

9) 이는 陵寺 금당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上層을 가구기단으로 조성함으로써 건물의 莊嚴性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10) 강당지는 別石의 板石인 지대석, 면석, 갑석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높이는 100cm이다. 지대석, 갑석 상·하단에서의 물딩은 없고 면석은 이들 보다 안쪽에 들여쌓았다. 지대석 상단은 면석을 세울 수 있도록 L 자형으로 각출하였다.

11) 이와 유사한 기단형식이 感恩寺址 講堂 西偏 建物址에서 확인되었다. 다만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하층기단 面石 위에 놓여진 甲石의 길이가 감은사지 강당 서편 건물지의 것은 30cm로 짧고, 미륵사지의 것은 상층기단 지대석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12) 이러한 축조기법은 感恩寺址 講堂 西偏 建物址 기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백제의 기단건축술이 신라에 전파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13) 한편, 中門址, 南回廊址, 西翼廊址 등도 단층의 가구기단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본 내용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강당 서편 건물지 등의 경우도 가구기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地臺石이 구비되지 않아 정형적인 가구기단으로는 보기 어렵다.

였다<sup>14)</sup>. 하층기단의 갑석과 상층기단의 지대석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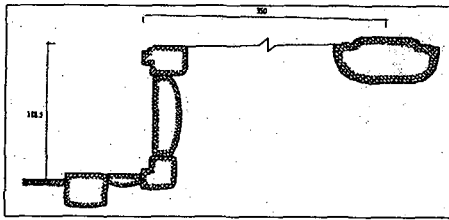


그림 4. 感恩寺址 金堂址 架構基壇

이에는 두께 8cm, 너비 29cm 크기의 板石을 別石으로 깔아놓았다.

상층기단은 지대석, 면석, 갑석을 갖춘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가구기단이다. 지대석은 길이 1.5~1.6m, 두께와 높이 각각 30cm 내외로써 外緣 상단에 너비 6cm, 높이 10cm의 턱을 만들었다. 면석은 길이 100~130cm, 높이 71cm, 두께 20~30cm 정도로 계측된다. 면석은 지대석 외연으로부터 약 3cm정도 퇴물림한 후 세워졌다.

갑석은 북쪽 기단과 계단에서 살필 수 있다. 갑석은 단면 37×39cm의 크기로서 외연 하단에 모를 죽여 높이 10cm, 깊이 7cm의 턱을 두었으며, 外緣 상단에는 3.5cm 높이의 弧形과 0.5cm 높이의 角形 물당을 두었다. 이와 같은 갑석 모양은 감은사지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그 어디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다.

• 講堂址(그림 5)

기단은 彌勒寺址 강당지와 같이 단층의 架構基壇이다. 지대석은 外緣 상단의 모를 접어 턱을 만든 일반적인 형태로 길이 180~237cm, 너비 21cm, 높이 22cm의 크기이며, 턱의 단면은 너비 6.5cm, 높이 9.5cm이다. 면석은 길이 95~208cm, 높이 25cm, 두께 14~15cm 등으로 크기가 다양하다. 갑석은 턱이 있는 일반적인 모양으로서 길이 165cm, 높이 21cm, 너비 38cm의 크기가 대부분이지만 길이가 210cm에 달하는 긴 것도 섞여 있다. 턱의 단면은 너비 6cm, 높이 10cm이다.

기단의 형태는 지대석 위에 면석을 올려놓을 때 퇴물림 하지 않고 턱의 면에 맞추어 세워 금당지

기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석 위의 갑석도 면석에서 내어 쌓지 않고 턱에 맞추어 쌓았다. 기단의 전체 높이는 60cm에 달하며, 갑석 윗면이 초석 윗면보다 14cm 가량 낮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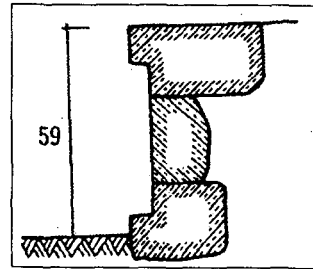


그림 5. 感恩寺址 講堂址 架構基壇

2-3. 百濟와 統一新羅의 架構基壇 比較 檢討

백제 미륵사지와 통일신라 감은사지에서 살피지는 가구기단을 상호 비교해 보면 금당지의 기단은 모두 이중기단으로써 상층이 가구기단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아울러 지대석, 면석, 갑석은 모두 別石의 판석으로 결구되어 있다. 특히 지표면에서 상층기단 갑석의 높이까지 미륵사지 동원 금당지가 126cm이고 감은사지 금당지의 경우가 118.5cm 이어서 높이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층기단 면석의 높이도 전자가 74cm, 후자가 71cm이고, 두께도 전자가 30cm내외, 후자는 20~30cm이어서 기단의 구조상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기단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6세기 중엽 이후 꾸준히 백제에서 신라로 전파된 불교문화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5)</sup>.

특히 감은사지 금당지의 건물 기단 空間은 미륵사지 금당지에서도 살피지고 있어 두 건물지의 구조적 특징이 일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기단 공간은 그 동안 고고학적으로도 백제의 미륵사지와 통일신라의 감은사지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두 건물지의 친연성, 더 나아가 백제 造寺工의 기단 건축술이 통일신라의 감은사지에 적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단 건축술의 전파는 비단 금당지 뿐만 아니라 강당지의 가구기단 축조기법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즉, 감은사지의 경우가 지대석, 면

14) 기단석에 있어 이러한 隅石의 등장은 결국 童子柱를 사용하지 않고, 面石만을 이용하여 결구하였음을 의미한다. 면석 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제작 공정의 용이함을 살필 수 있다.

15) 이러한 문화교류 양상은 기와(와당), 瓦窯 및 이중기단 등을 통해 살피볼 수 있다.

석의 상하단 외연에서 “턱”이 확인될 뿐, 나머지 부분은 미륵사지의 기단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

이처럼 백제의 미륵사지와 통일신라의 감은사지는 그 격에 맞게 금당지와 강당지가 각각 이중기단 및 단층기단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는 사찰에서 건물의 위치와 尊格에 따라 건물기단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한편, 설계상으로도 미륵사지의 것이 感恩寺址에 선행함을 알 수 있겠다.

한편, 7세기 중엽경의 阿非知에 의한 皇龍寺 9층목탑의 조영은 당시 백제 造塔術의 신라 전파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술할 6세기 4/4분기 경의 羅井 이중기단 역시도 백제 이중기단과의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유적의 시기 차는 최고 80년 정도<sup>16)</sup>이어서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治石技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륵사지의 가구기단이 지대석, 면석, 갑석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라 한다면 감은사지의 것은 장식성이 가미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당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층기단의 지대석과 갑석에서는 백제의 가구기단에서 볼 수 없는 상·하단 外緣에서의 턱을 볼 수 있다. 즉, 갑석의 경우 하단은 “ㄱ”모양으로 상단은 弧形 및 角形의 물딩으로 처리되어 있고 지대석은 “ㄴ”으로 段을 설치해 놓았다. 아울러 장식성과 관련은 없지만 면석의 경우도 지대석과 갑석의 턱 끝에 面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백제 미륵사지 금당지의 가구기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대석과 면석, 갑석 등의 결구방법은 감은사지 강당지에서도 찾아지고 있어 동일 造寺工들에 의해 축조되었음을 알게 한다. 다만, 금당지와 비교해 갑석 상단의 弧形 및 角形의 물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미륵사지와 감은사지의 가구기단은 조영시기의 차이를 반영하듯 지대석, 갑석 등에서의 장식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 즉 이중기단의 상층기단에 가구기단이 시설된 점, 전체적인 높이나 세부 제원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금당지에서의 기단 공간 등은 양국 기술의 親緣性이 적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단에서의 동질성은 결과적으로 백제 멸망 후 백제의 造寺工들이 신라 사회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백제 장인들의 대외적 파견과 그들에 의한 건축기술(사원, 토목기술 등)의 전파는 비단 신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sup>17)</sup> 당시 백제의 우수한 건축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미륵사지 금당지의 가구기단과 친연성을 보이는 것이 法隆寺 금당 기단(그림 6)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구조상으로 二重基壇이며 상층기단 및 하층기단 갑석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다. 다만, 하층기단의 면석이 “|”자형이 아닌 “|”형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단 구조의 친연성은 결과적으로 7세기 초반 이후 백제의 기단 축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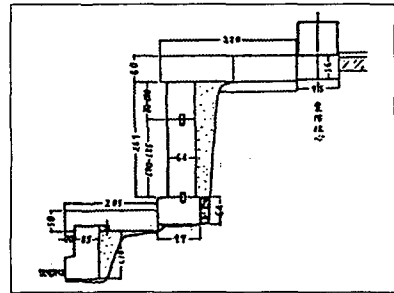


그림 6. 法隆寺 金堂 架構基壇

### 3. 瓦積基壇 築造術

와적기단은 기단의 外裝에 사용된 재료가 기와란 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동안 삼국 중 백제에서 만 확인되었다. 특히 백제의 와적기단은 일본 飛鳥時代 이후의 와적기단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고대 백제와 일본간의 문화교류에 적극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sup>18)</sup>.

와적기단은 축조방법에 따라 크게 平積式, 合掌式, 垂直橫列式 및 複合式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평적식은 시기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변천하였으나<sup>19)</sup> 합장식과 수직횡렬식, 복합식 등

17) 大宰府 水性 및 筑紫國의 大野城, 椽城 등을 들 수 있다. 『日本書紀』 卷 第27 天智天皇 3年 是歲條 및 4年 秋8月條. 李道學, 백제문화의 일본전파, 백제의 역사, 1995.  
18) 趙源昌, 百濟 瓦積基壇에 대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호, 2000.  
19) 평적식 와적기단은 平積의 방법, 평면 瓦列의 수, 地臺石의

16) 미륵사지는 무왕(600~641년) 생존시에 창건된 사찰이며, 감은사지는 神文王 2년(682)에 창건되었다.

은 군수리 폐사지나 부여지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검출되어 대중적인 기단 형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와적기단은 백제의 경우 사비천도 후 7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유행을 보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경주지역에서 검출된 수직횡렬식의 와적기단을 중심으로 백제의 것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百濟 瓦積基壇의 型式分類

(1) 平積式

평적식은 平瓦와 점토를 이용하여 기단을 축조한 것으로 평면상 한 줄 혹은 두 줄 이상의 瓦列로 이루어졌다. 瓦積은 기반토나 다짐토 위에 혹은 ‘L’字形으로 切土된 기단토의 開口部나 구(U모양)내부에 축조되었다.

평적식 와적기단의 기원은 공주 공산성 臨流閣址의 博士混築基壇으로 생각되며, 시초는 6세기 중반 이전의 부여 관북리 건물지(a)로 생각된다.

평적식 와적기단은 조사된 유적의 내용으로 보아 추정 王宮址, 寺址, 特殊 건물지, 城郭내 건물지 등 다양한 기와 건물지에 사용되었다. 이 중에는 初築부터 와적기단으로 사용된 예와 후에 보충되는 경우로 살필 수 있는데 전자는 군수리 폐사지, 후자는 陵寺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평적식 와적기단은 일부 금성산 건물지에서와 같이 이중기단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살필 수 있다.

이를 형식별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다.

<表1, 平積式 瓦積基壇의 型式分類>

地臺石		平面 瓦列		瓦積 方向		補強施設	
無	有	1줄	2줄 이상	基壇 方向	混築	有	無
①②③ ④⑤⑥ ⑦⑧⑨	⑩	①③④ ⑤⑥	⑧⑨⑩	①②③ ④⑩	⑦	⑥⑨⑩	기타

<凡例>

- ①官北里建物址(a) ②官北里“北舍”銘 甕器 出土 建物址
- ③軍守里廢寺址 北方基壇 ④軍守里 2號 建物址
- ⑤陵寺址 工房址 I ⑥錦城山建物址(사진 1)
- ⑦扶蘇山廢寺址 西回廊址 ⑧扶蘇山城 西門址 周邊 建物址
- ⑨外里遺蹟 ⑩王興寺址 西回廊址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⑩軍守里廢寺址 中央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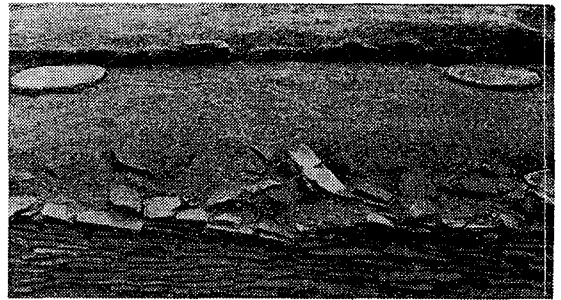


사진 1. 錦城山建物址 平積式 瓦積基壇

(2) 合掌式

이 기단은 瓦를 서로 엇갈리게 놓아 장식성을 돋보이게 하였다. 軍守里廢寺址의 中央基壇(金堂址, 사진 2)과 東方基壇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사진 2. 軍守里廢寺址 合掌式 瓦積基壇

(3) 垂直橫列式

이 형식에 대해선 2절에서 별도 기술하고자 한다.

(4) 複合式

- 垂直橫列式 + 平積式

軍守里 1호 건물지에서 살필 수 있으며 상면이 平積式, 하면이 垂直橫列式을 이루고 있다. 수직횡렬식에 사용된 암키와는 군수리 폐사지와 달리片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3-2. 百濟의 垂直橫列式 瓦積基壇

백제의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은 군수리 폐사지를 비롯한 군수리 제 1호 건물지, 관북리 건물지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군수리 건물지는 복합식의 와적기단으로 하부의 것이 수직횡렬식으로 축조되었다. 반면, 상부는 평적식으로 축조되어 특이

한 기단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군수리 폐사지에서 검출되는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은 금당지(사진 3)의 동·서·북면에서 살펴지고 있다. 完形에 가까운 암키와를 횡으로 하여 일렬로 세워 기단을 조성하였다. 장폭은 상하로 두었으며 기와의 내면(포면)은 건물의 안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와의 높이가 곧 기단토의 상면을 의미하고 있어 견고한 기단시설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조사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져 기단 아래에서의 지대석 존재나 기단토의 조성 방법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사진 3. 軍守里廢寺址 垂直橫列式 瓦積基壇

관북리 건물지의 와적기단은 수직횡렬식 및 평적식으로 축조되었다. 수직횡렬식의 경우 군수리 폐사지 금당지에서와 같이 완형의 평기와를 위주로 하여 조성하였다. 기단 아래에서의 지대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단토 및 건물지 등에서 관련 유물들이 검출되지 않아 정확한 편년은 설정하기 어렵다.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은 백제에서의 경우 군수리 폐사지의 사례로 보아 6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3-3. 新羅의 垂直橫列式 瓦積基壇

경주 인왕동 556·566번지 유적의 남북 담장석렬 부속 출입시설에서 확인되었다. 와적기단(그림 7)은 담장석렬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채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단과 맨 하부의 地臺石<sup>20)</sup> 사이에는 기단토가 노출되어 있다.

기단토는 넷돌과 소토, 목탄 등이 혼입되어 있는 갈색 점사질토를 충전토로 사용하였다. 기단은

이 충전(기단)토의 전면을 掘土한 후 그 자리에 기와를 세워 꽂은 후 다시 황갈색 점토를 충전하여 마무리하였다. 기단에 사용된 기와는 수키와편을 비롯해 암키와편<sup>21)</sup>, 당초문 암막새편<sup>22)</sup>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단의 축조기법은 백제의 경우 군수리 와적기단 건물지 및 관북리 석축기단 건물지<sup>23)</sup>에서도 검출된 바 있어 양국의 문화교류를 판단케 한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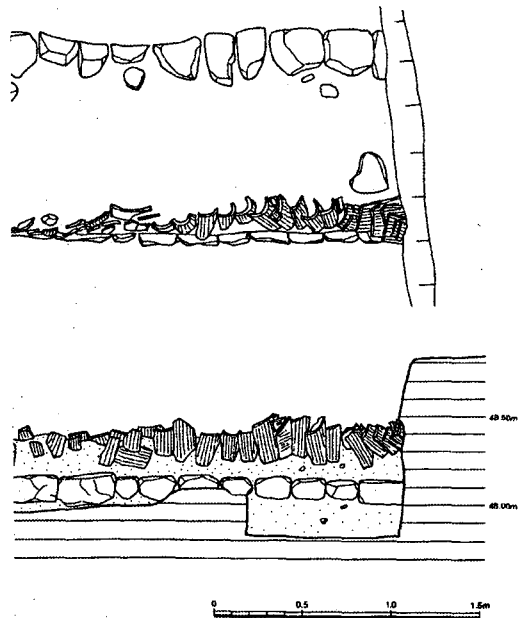


그림 7. 慶州 仁旺洞 出土 垂直橫列式 瓦積基壇

### 3-4. 百濟와 新羅의 垂直橫列式 瓦積基壇 檢討

신라의 와적기단에 사용된 기와는 백제와 달리 폐기된 수키와를 주로 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에서는 기와가 서로 겹쳐있는 것도 확인된다. 기단에 사용된 廢瓦(암·수키와, 암막새)의 길이가 다

20) 이 지대석은 남북 담장석렬의 기초시설로서 수직횡렬식 와적기단과는 조성시기가 다르다.

21) 기와의 등면에는 중판의 鼓板으로 타날된 선조문이 시문되어 있다. 원통형 와동으로 제작되었으며 瓦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었다.

22) 적갈색을 띠는 당초문 암막새편으로 상하단에 연주문대가 시문되어 있다. 당초문은 수려하게 판구 내에 딱 차게 조각되었다. 암막새의 등면은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의 동법와가 皇龍寺에서 출토된 바 있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 發掘調査報告書, 도면 19-1, 2003).

23)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현장설명회 자료, 2003.

24) 기단토의 전면을 굴토하고 瓦積을 하는 방법은 평적식으로 축조된 부소산 서문지 주변 건물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단 축조기법은 기존의 石築基壇에서 보기 힘든 예로 瓦積基壇의 장식성을 엿보이게 한다.

양하여 기단으로서의 정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백제의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은 완형의 암키와만을 사용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일렬로 세웠다는 점에서 신라의 것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기단토의 止沙施設이란 측면에서도 백제와 신라의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은 차이가 있다. 즉, 인왕동 출토 기단의 경우는 와적기단 아래로 기단토가 위치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사시설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기단에 사용된 기와와 담장석렬의 기초시설로 사용된 割石간의 공백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반면, 백제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의 경우는 내구성은 약하지만 완형의 암키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止沙施設로의 기능은 어느 정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의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은 군수리 폐사지의 조성시기로 보아 6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신라 인왕동유적의 경우는 기단에 포함된 암막새편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이후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백제와 비교해 1세기 이상의 시기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백제와 신라 모두 건물지의 조사가 왕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여 볼 때 향후 이들 지역 이외에서 이들 시기차를 좁혀줄 수 있는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이 검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겠다. 그리고 백제에서 신라로의 문화전파는 인왕동유적의 동서 담장석렬 출토 印章瓦나 원형돌기식의 와당의 예로도 검토해 볼 수 있어 수직횡렬식 와적기단이 조성되기 그 이전부터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겠다. 이는 백제 멸망 후 감은사지 금당지에 채용된 가구기단의 축조술로도 살피볼 수 있다<sup>25)</sup>.

한편, 이러한 수직횡렬식의 와적기단은 일본의 横見廢寺에서도 일찍이 검출된 바 있어 백제 造寺工의 신라 派遣뿐만 아니라 일본 파견까지도 확실케 한다<sup>26)</sup>.

#### 4. 二重基壇 築造術

이중기단이란 기단토나 기단석이 상층, 하층으

로 양분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단은 일찍이 중국 漢代에서 비롯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늦어도 5세기 초엽 고구려에 등장하였다<sup>27)</sup>. 즉, 동명왕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定陵寺(그림 8, 427년 창건)나 金剛寺(청암리 폐사지) 등에서 이와 같은 기단형식을 쉽게 살필 수 있다. 특히 정릉사 금당지의 경우는 하층기단 상면에 초석을 배치하여 건축사상 백제 금성산 건물지를 비롯한 신라의 황룡사지(최종가람) 금당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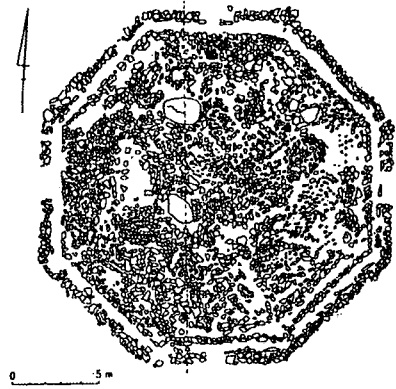


그림 8. 定陵寺址 塔址 二重基壇

이중기단은 본래 중국의 前漢 수도인 長安 明堂<sup>28)</sup>遺蹟內 辟雍(그림 9)에서 살필 수 있어 그 기원이 중국 漢代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단 건축물은 다른 불교문화나 고분문화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대륙을 통해 한반도의 고구려나 백제에 유입되었음을 판단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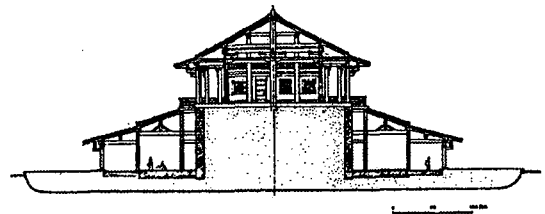


그림 9. 長安 明堂遺蹟內 辟雍 二重基壇

25) 趙源昌, 寺刹建築으로 본 架構基壇의 變遷 研究, 百濟文化 32輯, 2003.  
 26) 조원창, 백제 건축기술의 대일전파,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7)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375년에 省門寺나 伊佛蘭寺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國內城 시기에 이미 이중기단이 시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 명당은 황제가 주체가 되어 선조와 上帝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후의 조회를 받으며, 尊賢·奉老를 행하는 일종의 禮制建築이었다.



## 4-1. 百濟 二重基壇의 型式分類

백제 이중기단은 현재 사비시대의 寺址 및 특수 건물지 등 기와 건물지에서 만 확인되고 있다. 이중기단은 기단의 축조방법과 축석재료, 그리고 하층 기단상의 외진주 적심(초석)석열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下層基壇 : 治石(長臺石)基壇, 上層基壇 : 架構基壇인 境遇

부여 陵寺址 금당지에서 살필 수 있다. 금당지의 기단토는 능사지를 조성기 위해 복토하였던 대지 조성토를 다시 굴광하고, 그 공간에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완성하였다.

상층기단의 지대석은 화강암의 장대석으로 길이는 대략 120~180cm이고, 안쪽으로 약 11cm 퇴물림한 곳에 면석을 세우기 위한 턱이 ‘L’字 모양으로 단이 저 있다. 면석은 하층기단의 서면에서 1매가 확인되었는데 잘 治石된 화강암의 판석으로 크기는 63×100×10cm이다. 甲石은 모두 결실되어 살필 수 없다.

(2) 下層基壇 : 瓦積基壇, 上層基壇 : 割石亂層基壇인 境遇

錦城山 건물지에서 살필 수 있다. 하층기단의 정면 길이는 18.04m, 측면 길이는 14.72m이다. 하층기단 상면에는 退間 혹은 遮陽間의 주초로 판단되는 원형 초석이 일부 남아 있으며 그 너비는 약 1.4m이다.

이 建物址의 하층기단은 평적식의 와적기단으로 축조되었으며 상층기단은 할석재로 조성되었다. 상층기단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구조는 파악이 어렵다.

(3) 下層基壇 : 架構基壇, 上層基壇 : 架構基壇인 境遇

彌勒寺址 동·중·서원 금당지에서 살필 수 있다. 하층기단은 판석으로 이루어진 面石과 甲石으로 이루어졌고, 상층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갑석으로 결구되었다. 상층기단의 지대석은 하층기단의 갑석과 맞닿아 있으며, 면석이 올려질 수 있도록 약 1/2 가량 ‘L’字 형태로 治石되었다. 갑석은 하층기단과 마찬가지로 面石 보다 약 10cm 정도 앞

으로 빼어 놓았다. 이러한 형식의 기단은 통일신라 感恩寺 金堂址 및 일본(飛鳥時代) 法隆寺 금당지에서도 살필 수 있다.

(4) 下層基壇 : 割石基壇, 上層基壇 : 割石正層基壇인 境遇

龍井里 南建物址에서 살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단의 축조기법은 신라 羅井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하층기단은 상층기단의 보강적 역할을 하는 기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이중기단이 갖는 일반적인 위엄성 혹은 장엄성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써 이중기단의 새로운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5) 上層基壇의 築造位置에 따라 區分

금성산 건물지와 같이 하층기단이 끝나는 기단 토면에서 상층기단이 축조되는 경우와 용정리 남 건물지에서와 같이 상층·하층기단의 축조위치가 동일한 기단토면일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라 황룡사의 경우는 전자에, 그리고 羅井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이들 제 형식을 보이는 백제의 이중기단 중 신라의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부여 용정리 南建物址이다. 특히 기단을 축조하는 재료가 상층·하층 모두 할석재라는 점과 상층기단의 축조위치가 하층기단과 동일한 레벨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6세기 중엽 이후 백제의 이중기단이 신라에 비해 월등히 발전되었다는 사실에서 백제의 기술전파를 추론케 한다.

## 4-2. 百濟 龍井里 南建物址 二重基壇

는 경작과 관련하여 북쪽 기단석렬 24m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멸실되었다. 기단은 이중의 석축기단(그림 10)과 단층의 석축기단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 건물지의 기단석렬에서 이러한 기단 형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기단의 시기적 중복을 반영한다. 즉, 이중기단과 단층기단의 混築은 동일 기단석렬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로는 이중기단이 먼저 조영되고 후대의 중건과정에서 일부가 단층기단으로 바뀌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중기단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일 시기의 混築基壇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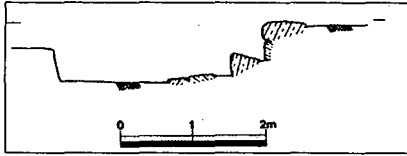


그림 10. 龍井里 南建物址 二重基壇 斷面

이중기단의 하층기단은 1단으로 조성되었다. 기단석은 대부분 괴형이고 크기가 달라 고저차는 있으나 전면은 반듯하게 정지되었다. 하층기단의 基底面은 생토(기반토)가 아닌 다짐토로 이루어졌고 기단석 상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기저면 위에 썰기돌을 올려 놓았다. 상층기단석은 하층기단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할석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3단 높이의 할석정층기단으로 보이나 치석기단에서와 같은 정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층기단석 후면으로 별도의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단석과 기단토의 축조는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하층기단석의 片築방향은 모두 전면을 향하고 있다.

이 건물지는 주변에서 검출된 단판 8엽 연화문 와당으로 보아 건물의 초축은 6세기 중엽 이후로 판단되고 중건은 소문 와당으로 보아 7세기대로 추정된다.

4-3. 新羅 羅井址 二重基壇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라의 이중기단은 황룡사지 금당지나 나정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하층기단 상면에 외진주 적심(초석)석렬이 놓여진 것으로써 백제의 금성산 건물지나 정림사지 금당지 등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황룡사지 금당지의 경우 상·하층기단 모두가 할석난층기단이라는 점에서 백제의 이중기단과 차이가 있다.

반면, 羅井 유적(그림 11)은 백제의 용정리 남건물지와 축조기법상 아주 친연성이 높아 본고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기단토의 단면

이 1단을 보이고 있으나 기단석이 2단인 점에서 동질성이 있다<sup>30)</sup>.

나정은 신라 시조인 赫居世의 탄강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현재 사적 제 2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5월부터 2005년 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신라~통일신라로 추정되는 八角建物址 1동과 담장지, 배수로 등이 검출되었고 이보다 이른 시기로 파악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도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 중 백제의 용정리 南建物址와 친연성이 있는 이중기단은 바로 팔각건물지에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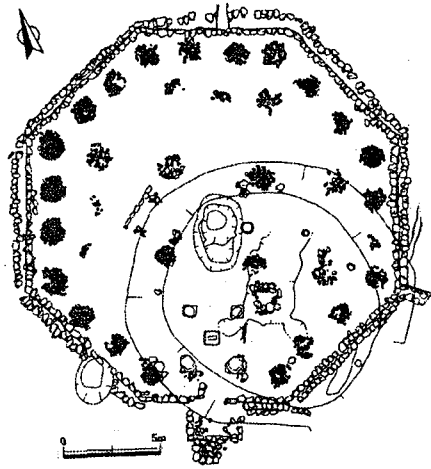


그림 11. 羅井 八角建物址 二重基壇

기단은 기반암층인 명황색 풍화토를 팔각형태로 절토하고 그 외면에 이중으로 기단석을 축조한 다음 기단토와 기단석 사이는 작은 할석과 암갈색 점질토로 충전하였다. 하층기단석은 8면 모두 1단으로 축조되었으나 상층기단은 멸실 정도가 심하여 정확한 段數를 알 수 없다. 다만, 잔존 상태가 양호한 북쪽면의 경우 4단 약 70cm 정도 남아 있다.

상·하층기단 모두 동일 기반토상에 놓여 있으나 하층기단의 경우 그 축석기법이 다양하여 특징

29) 이는 한단 한단의 기단석을 築石한 후 잇대어 기단토를 築土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0) 반면, 백제의 금성산 건물지, 부소산 폐사지 금당지, 능사지 금당지, 정림사지 금당지 및 신라의 황룡사지 금당지 등은 기단토의 斷面이 2단이며 이에 따라 基壇石도 자연스럽게 2단으로 축조되었다.

을 보이고 있다. 즉, 출입시설 동편에 위치한 하층기단의 경우는 기단석렬의 바른면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다른 면의 기단석렬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상층기단 최하석의 보강을 위한 기능적인 조치로 파악되며, 하층기단 외곽으로는 1조의 뒤채움석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처럼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의 기단석렬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이중기단은 백제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경우이다. 이 같은 현상은 팔각건물지의 기단을 축조하였던 장인들이 역할에 따라 구간을 달리하며 작업을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같은 추정은 출입구의 북쪽면 주변과 서쪽면 주변 등지에서 확인되는 상층기단과 하층기단 간의 간격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 장인들에 의해 기단 축조가 이루어졌다면 상층기단 최하석에 하층 기단석을 잇대어 축조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층기단의 축조기법 차이를 보면 최소 세 부류 정도의 장인들이 구역에 따라 작업 분담이 각기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층기단은 割石材이나 입면이 대체로 방형 혹은 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正層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 같은 할석정층쌓기는 백제의 龍井里 南建物址와 동일한 축조기법을 보이는 것으로서 건축기술의 대외교섭을 엿보이게 한다. 상층기단은 모두 기단석의 바른면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片築基壇이며 별도의 隅石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나정의 이중기단에서는 백제의 와적기단에서와 같은 切土技法도 확인되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나정의 기단토는 기반암층을 팔각형으로 切土·整地하였으며 그 외면에 상층기단석을 덧대어 놓았다. 따라서 절토된 기반암층까지의 상층기단석은 본래의 기단토 止沙施設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절토된 기단토와 상층기단석 사이는 작은 할석과 암갈색 점질토로 충진함으로써 간극을 없애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을 보이는 기단토와 기단석과의 관계는 백제 정립사지 금당지, 금성산 건물지 및 부소산성 서문지 주변 와적기단 건물지 등에서 쉽게 살필 수 있다. 제시된 건물지 모두 기단에 사용된 부재가 석재가 아닌 기와라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基壇土의 切土와 기단토와 기단 사이의 充填 등은 동일하다. 하지만 백제의 용정리 남건물지는 다짐토 위에 기

단이 축조된 관계로 신라의 羅井에서와 같은 절토기법은 살필 수 없다. 아울러 기단석과 기단토의 동시 축조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의 충전물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신라 羅井은 축조기법상 백제의 이중기단 축조술과 와적기단 축조술 모두를 응용시킨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 동안 신라의 故土에서 이 같은 축조기법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할 때 백제 건축기술의 신라 전파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많은 자료 검토를 통해 백제 건축기술의 신라 전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結論

백제는 중국 남조 및 고구려와의 문화교섭, 혹은 자생적 문화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단건축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단은 기단토의 지사시설로써 석재, 기와, 埽, 토석혼축, 전토혼축, 전석혼축 등 다양한 재료로 축조되어 왔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와적기단 등이 사용되어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

기단은 그 동안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토대로 하여 볼 때 건물의 위엄이나 장엄 혹은 장식성을 돋보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요컨대 이중기단이나 가구기단 등은 사찰의 금당지나 탑지 등에 만 주로 시설되었다는 공통성이 있어 이 같은 판단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폐기와를 주로 하여 축조한 와적기단의 경우는 기단의 기능성과 관련 없이 장식성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백제는 6세기 중반 이후 제와술과 기단 축조술을 신라에 전파하였다. 전자의 형적은 현재 신라 지역에서 검출되는 백제계의 원형돌기식 와당이나 인각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후자는 황룡사지 최중가람의 이중기단이나 나정의 할석재 이중기단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황룡사 9층목탑과 관련하여 백제에서 파견된 造塔工 阿非知는 신라에 백제의 造塔기술을 전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백제에서 신라로의 건축기술 전파는 백제의 멸망과 더불어 더 한층 가속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거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편린을 살필 수 있다.

삼국통일 후 신라에 등장한 새로운 기단축조술로는 수직횡렬식의 와적기단과 감은사지 등에서 확인되는 가구기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6세기 중반 이후 백제에서 유행하였던 기단건축이라는 점에서 큰 이의가 없다.

최근 들어 백제 및 신라의 故土지역에서 간헐적이나마 寺址를 비롯한 건물유적 등이 발굴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과 건축학의 연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적의 올바른 해석에 고고학 이외로 건축학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고고학과 건축학의 연계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1. 『三國遺事』
2. 『三國史記』
3. 『日本書紀』
4. 朝鮮總督府,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查(開窟), 朝鮮古蹟調查報告 昭和 11年, 1937.
5. 尹武炳, 金剛寺, 國立博物館, 1969.
6. 한인호, 정릉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호, 1986.
7. 한인호, 고구려의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력사과학 2호, 1988.
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彌勒寺, 1989
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1989.
10. 張慶浩, 百濟寺刹建築, 藝耕産業社, 1991.
11. 이도학, 백제문화의 일본전파, 백제의 역사, 1995.
12. 公州大學校博物館, 九龍寺址, 1995.
1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感恩寺, 1997.
14.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8.
15. 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16. 盧重國, 新羅와 百濟의 交涉과 交流, 新羅文化 10·18합집, 2000.
17. 趙源昌, 百濟 瓦積基壇에 대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號, 2000.
18. 翰林大學校博物館, 居頓寺址, 2000.
19. 趙源昌, 百濟 二層基壇 築造術의 日本 飛鳥寺 傳播, 百濟研究 35輯, 2002.
20. 趙源昌, 百濟 建築技術의 對日傳播,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1. 趙源昌, 寺刹建築으로 본 架構基壇의 變遷 研究, 百濟文化 32輯, 2003.
22. 國立扶餘博物館, 陵寺, 2000.
2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仁旺洞 556·566 番地遺蹟 發掘調查報告書, 2003.
24. 中央文化財研究院, 慶州羅井, 현장설명회자료 04-5, 2004.
25. 尹武炳·李康承, 扶餘 龍井里 南建物址 發掘調查報告書.
26. 楊鴻勛, 從遺址看西漢長安明堂(辟雍)刑制, 建築考古學論文集, 1987.
27. 王仲殊 著/姜仁求 譯註, 漢代 考古學 概說, 1993.

# A Study on How Baekje delivered Stylobate-Constructing Techniques to Silla Counterpart

Cho, Won-Chang

(Senior Researcher at 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Department,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A stylobate, part of the foundation for hardening soil below the floor, has been built with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stone, tile and brick, in several kinds of combined constructions of soil, stone, and brick. In particular, Baekje used a tile-piled stylobate that could not be found in Goguryeo and Silla counterparts, thus showing outstanding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culture. Archeological excavations up to now evidence the stylobate played a role in building the magnificent structures or enhancing the decorative effects. It can be enough inferred that such features are reflected on dual footing stylobate, framed stylobate and tile-piled stylobate.

Baekje had delivered its techniques for constructing stylobate to Silla from about the middle of 6th century. They can be traced down back from the dual stylobate that has been identified in Hwangryong-sa temple lastly built in the old site of Silla, those constructed with broken stones at Najeong, tile-piled stylobate of the mode of vertical-horizontal rows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Inwang-dong, Gyeongju, the capital of the kingdom, and a framed stylobate at Hall enshrining Buddha (Golden Hall) site of Gameun-sa temple site.

Recently, relics of structures, including temple sites, are intermittently being unearthed in the old sites of Baekje and Silla. However, studies linking archeology with architecture can be rarely found up to now.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relics should be correctly construed in archeological as well as architectural aspects. We expect that further studies can graft architectural insight into archeological analysis.

---

Keywords: stylobate, construction technique, tile-piled stylobate, dual stylobate, framed stylobate.

---